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대인교류 기제와 한국생활적응: 체면과 눈치를 중심으로

남 순 현¹⁾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 54명을 대상으로 대인교류의 심리적 기제, 즉 체면과 눈치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를 살펴보고, 대인교류의 문화적 특성들이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생활적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본, 조선족, 중국, 베트남 및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거주기간 2년을 전후로 두 집단으로 나뉘어 2009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 중 1회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에 참여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축어록으로 만들어진 후 Giorgi(1985)의 4단계 현상학적 텍스트 분리작업에 따라 분석되었고, 모든 분석작업은 Lincoln과 Guba(1985)의 4가지 평가기준을 따라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준수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인에게 체면(面子(mian zi))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일 정도로 체면은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 모두에게 중요하였고, 일본인에게 '눈치가 빠르다(機(き)てん)がきく'는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일 정도로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눈치는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비언어적 메시지였다. 체면과 눈치는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보다는 국적별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체면이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적응적 기능을 하였다면, 한국어에 서툰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눈치는 또 하나의 언어(예, 이심전심)로써 그 기능을 하였다.

주요어 : 대인교류기제, 체면, 눈치,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 질적 연구, 面子(mian zi), hiya, メンツ(menz), (lian), 눈치가 빠르다(機(き)てん)がきく, 이심전심, pakikiramdam

1)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과 (E-mail : shnam@korea.ac.kr)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속에서 의미있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는 개인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상 오랜 시간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베트남, 그리고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생활방식은 관계문화적인 특징이 강하다. 유교문화권은 아니지만, 필리핀 군도로 이주해오면서 필리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집단으로 자리잡은 필리핀인들의 생활방식인 바랑가이(Barangay, 강렬한 혈연집단)는 집단의 관계성을 강조해 왔다.

서구문화와 달리, 관계문화를 특징짓는 것으로는 첫째, 서열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는 북미대륙과 달리 수평적인 대등성보다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집단성이다. 사회 속의 한 개인으로서 나보다는 우리 안에서의 내가 더 강조된다. 다시 말해서, 서구의 개인주의와 달리, 동양의 집단주의는 내집단 안에서 집단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독립성보다 관계 속에서의 심리적 친밀감을 더 중요시해 왔다(Nam & Han, 2009b).

따라서 한국사회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대인상호작용을 규정짓는 문화적 특성, 즉 문화적 대인교류기체인 체면, 눈치는 자기표현이 자유롭고 상하의 위계질서가 덜 강조되는 북미 서구보다 더 발달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동일한 문화특성도 예

컨대, ‘우리성(wenness)’이란 하나의 개념을 보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상이하다. 중국과 조선족에게 우리성(我們, 咱們)은 나와 타아를 구분하는 ‘나의 개념에 가깝고, 일본인들에게 우리성(わたしたち)은 내가 여럿이 모여 있는 ‘나들’을 의미하며, 필리핀 사람들에게 우리성(kapwa)은 같은 ‘동포’의 의미를 지니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성(chúng tôi)은 ‘친족공동체’의 의미를 지닌다(남순현, 2010; Nam & Han, 2009a). ‘체면치레하다’, ‘사람이 눈치 좀 있어라’ 등과 같이 한국인의 중요한 대인교류기체인 체면과 눈치는 우리성 못지않게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아주 친숙하고 흔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체면과 눈치를 한국의 사회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논의는 비교적 일찍부터 시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윤태림, 1987; 최재석, 1989), 동아시아 문화특성에 대한 비교문화적 토착심리분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면과 눈치의 대인교류기체의 문화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문화특성이 한국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는 181,671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5.9%에 해

당하고, 2009년도 167,090명에 비하여 14,581명 (8.7%)이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09).

한국의 국제결혼은 한국전쟁 때문에 들어온 주한미군이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온 외국인 근로자와의 결혼관계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의 결혼을 주선했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주선으로 인한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다(최무현, 2009). 2010년도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조선족 포함)의 국제결혼이 2009년도 11,364건(45.2%)으로 전체 국제결혼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숫자이나 2004년 18,489건(73.6%)에 비해 감소한 반면, 2010년도에는 베트남 9,623건(36.6%), 필리핀 1,906건 (7.3%) 등 동남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1).

이러한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의 흐름으로 인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문화에 유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여성결혼이민자들 자국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 또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과 어려움으로 가능한 빨리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최근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등 적응상의 문제점을 도출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

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김경옥, 2010; 박은진, 2007; 박정숙, 2007; 차옥승, 2008; 채옥희, 홍달아기, 2006; 홍미기, 2009), 보편적으로 부부관계 문제, 자녀관계 문제, 가정 문제, 사회문화적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문제 등을 한국생활의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행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서 겪는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Hovey & Magana, 2002; Snyder, 1987; Thomas & Choi, 2006)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남순현, 2010)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일본, 베트남, 필리핀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면과 눈치의 대인교류기제가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어떻게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체면과 눈치의 사회문화특성이 한국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체면

체면은 그동안 한국인의 고유한 사회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하여 이를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김주엽, 2003; 임태섭, 1994; 최상진, 김기범, 2000), 이 연구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체면과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과 일회적 인터뷰를 통해 양적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반복적으로 다단계 범주화를 통해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최근 체면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체면을 하나의 변수로 측정하여 다른 변수와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김재휘, 김태훈, 전진안, 2008; 김태현, 김재범, 2004; 송지연, 박기환, 2009; 양병창, 2001; 유승엽, 2007; 이규만, 박경규, 2001; 이용규, 정석환, 2006; 전병준, 2001; 정명섭, 김혜진, 2009; 조용현, 이경근, 2007; 현선희, 이화석, 2008).

체면은 몸을 뜻하는 체(體)와 얼굴을 뜻하는 면(面)의 합성어다. 그 한자어 자체가 뜻하는 것처럼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된다’(한글학회, 1994). 한국의 체면에 해당하는 서구의 용어는 ‘face’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체면과 함께 얼굴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실제 개념 정의에서는 차이가 있다. 북미 서구에서 face, facework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Goffman(1967)은 face를 ‘자아에 대한 이미지(image of self)’로 정의하였으며, 인상관리차원에서 face를 접근한 Brown과 Levinson(1987)은 ‘공적인 자아이미지(public self-image)’로, 그리고 Ting-Toomey(1994)는 ‘정체성 경계 이슈(identity-boundary issue)’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서구의 학자들은 face를 자아(self) 중심으로 정의하고 체면행위나 인상관리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체면의 정의는 자아중심적인 ‘얼굴뿐만 아니라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로 정의한 것처럼, 타인과의 관계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이 보여주거나 지켜야 할 체면이 다를 것을 강조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한국인에게 체면은 ‘자신이 자신을 보고 느

끼는 자괴성 부끄러움’과 ‘남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고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다. 남에게 한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도리에 어긋났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창피감을 경험하며, ‘창피당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창피를 당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언행이지만, 실제로 부끄러움의 대상은 자괴성 부끄러움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 즉 내적 품성의 취약점(예컨대, 비겁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등)이다. 여기서 상대의 반응이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만든 것은 그러한 행동의 문제점 암시나 확인을 통해 반성적으로 인식된 행위자의 인품상의 하자이다(최상진, 김기범, 1998).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형태와 방식으로서의 체면과 부끄러움은 도덕중심적-자괴성 부끄러움과는 차이가 있다(최상진, 2007). 그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자괴성 부끄러움과 창피성 부끄러움의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 일상생활에서의 체면과 부끄러움은 자기반성적 자괴성 부끄러움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가 남에게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대의 반응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반사적 창피성 부끄러움이다(최상진, 김기범, 1998).

둘째, 예의염치 중심의 도덕성과 양심성을 준거로 한 체면과 부끄러움은 도덕적으로 자신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판단이다. 그러나 체면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도덕적 준거 이외에 능력이나 신분-지위가 부끄러움 경험의 준거적 원천이 되기도 한다(최상진, 2007). 마찬가지로 능력상의 우월성이 현

시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체면이 섰다’ 또는 ‘체면 세웠다’라고 말한다.

긍정적 능력체면에는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한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능력과 연계되어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등의 자의식으로 자기경험될 때 생기는 ‘자기귀결성 능력 체면’이 있는가 하면, 능력 체면 의식이 발동 또는 관여되는 능력 체면 관련행위를 의식적으로 나타내보이는 ‘자기현시성 능력 체면’이 있다. 소위 공의(公義)를 앞세우는 ‘명분 체면’은 도덕적 자기우월성을 나타내 보이려는 ‘자기현시성 도덕성 체면’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집단사회에서 자기현시적 체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며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조용현, 이경근, 2007).

체면을 도덕성 인격체면과 능력체면의 두 차원과 방향성에 따라 4가지 형태의 체면, 즉 못된 놈-좋은 놈 체면과 못난 놈-잘난 놈 체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체면욕구와 관련시킬 때, 체면욕구는 도덕적 인격상에서 못되지 않은 또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구와 능력 면에서는 못나지 않은 또는 잘난 사람이 되려는 욕구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부정적 방향의 체면, 즉 못된 놈과 못난 놈이라는 자기인식은 부끄러움을 유발하고, 긍정적 방향의 체면, 즉 좋은 놈과 잘난 놈이라는 자기인식은 떳떳함과 자부심(우쭐감)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체면욕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떳떳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려는 심리경험적 욕구로 수렴해볼 수 있다(유승엽, 2007; 최상진, 유승엽, 1992).

자기완성적 욕구에 기초한 체면을 ‘인격적

체면’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성취욕구에 기저한 체면을 ‘사회적 체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체면과 관련해서 ‘낮 뜨겁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고양이도 낮짝이 있지’, ‘낮 두껍다’ 등과 같은 말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도리, 즉 자신의 도덕적 인격에 하자가 생겼을 때 흔히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에서의 공통적 특징은 얼굴(face)을 도덕성과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반면 남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회적 체면은 얼굴보다는 몸(體)을 체면의 상징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지체, 체통, 위신, 체모, 체신 등과 같은 말은 모두 몸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구성된 말이며, 사회적 체면의 성격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얼굴은 벌거벗은 것이란 점에서 내적 자기, 즉 내재적 인격이라고 한다면, 몸은 옷 또는 의관이라는 지위신분 상징을 걸친다는 점에서 외적 자기, 즉 지위와 신분 및 이에 따른 권위 및 인격을 함축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2000).

Ho(1976)는 동양의 체면이라는 개념이 서구의 위신(prestige), 명예(honor), 존엄성(dignity) 등과 다른 개념임을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인의 체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하나는 얼굴에 해당하는 臉(lian)과 이미지(image)에 해당하는 面子(mian zi)이다. 臉(lian)은 도덕적 인격성을 함축하는 체면이며, 面子(mian zi)는 사회적 성취와 결부된 권위와 능력을 배경으로 한 체면이다(Cheng, 1986; Ho, 1976). 여기서 중국인의 臉(lian)은 한국인의 인격체면에, 중국인의 面子(mian zi)는 한국인의 사회적 체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체면구조와 중국인의 체면구조간에 매우 높은 유사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일본인에게도 체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인의 체면인 멘ツ(menz)는 자기현시성 체면보다는 자기방어성 체면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수치가 중요한 체면준거 원천이 된다(Lebra, 1976). 수치감은 도덕적 인격성의 하자보다는 집단적 명분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체면은 본심인 혼네보다는 일본인의 사회적 교류방식인 다테마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서 의례적 측면의 체면성이 높다(최상진, 2007). 따라서 일본인의 체면은 개인수준의 인격체면의 측면보다는 집단수준의 명분체면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중국과도 다르며 서양과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사회에서 체면은 ‘낯이 선다(khuôn mặt(face), đối diện(social image))’는 것을 의미한다(Geoffrey, 2006). 여기에서 ‘얼굴’은 내적 자기(internal self, 內的 自己), 즉 내적 품성의 외적 표현인 동시에 외적 상징이다(최상진, 2007).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얼굴을 들 수 없다는 말 속에는 그러한 행동에 도리를 지키지 않은 마음씨가 관여되었고, 그러한 마음씨 때문에 부끄럽게 느낀다는 함축이 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체면 손상은 치명적이다. 빈곤층을 비롯하여 모든 가정은 대규모로 결혼식을 치르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 돈을 물 쓰듯 쓴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결혼식 후 파산하더라도 이는 ‘체면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북미 서구인들은 타협을 합의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는 반면,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의 취

약을 드러내는 일은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본다(Geoffrey, 2006). 다만, 타협은 상대를 패배시키는 대전략의 일환으로만 이용한다. 호찌민의 ‘원칙있는 타협’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반면에 베트남인들은 자기의 체면도 중시하지만 상대의 체면도 중시한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했는데 이는 상대의 체면을 배려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필리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기과시(Mayabang) 표현이나 검둥이(Indio), 나막신(Bakya) 등의 자기비하나 자기연민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원류는 모두 hiya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들의 평판이나 가십 등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당위성이나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보다는 체면과 평판에 더 의존하여 행동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김성철, 1992).

필리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가치로서 보통 수치심(shame), 수줍음(shyness), 당혹감(embarrassment), 자존심(self-esteem), 체면손상(loosing face) 등을 뜻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hiya가 있다. 스페인의 지배의 영향으로 필리핀인들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스페인어인 amor-propio(자기에 대한 사랑, 자존심, 명예, 체면)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한 덕목이라면, hiya(수치심 또는 창피함)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거나 묵과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으로써, 사회적 제어장치의 역할을 한다(Roches & Roches, 2005). 따라서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가장 치명적인 말은 ‘walang hiya(수치심이 전혀 없는 자)’이고 이는 창피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옥,

2012). 따라서 필리핀인들에게도 몇몇을 심리적 과정의 매개로 부정적으로는 *hiya*가 나타나 는 반면, 긍정적으로는 *amor-propio*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walang hiya*’로 나쁜 사람 또는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체면의 기능은 체면의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체면은 인성의 형성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이고, 심리과정이 되며 따라서 체면의 발달은 곧 인격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체면은 일종의 자기반성체제이며 자기제어체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적 품성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체면이 지위나 신분의 획득과 현시에 집착되거나 인격과 능력의 과장이나 과도하게 치레성 중심적일 때, 체면과 체면심리는 부정적 방향의 인성형성과 인격의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체면은 긍정적 및 부정적 기능의 양면성을 갖는다(최상진, 김기범, 2000).

다른 한편, 사회적 현상으로서 체면은, 즉 남 앞에서 체면을 차리거나 남의 체면을 세워 주는 체면행동은 상호의 자존심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을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할 때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면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체면의 이와 같은 긍정적, 부정적 기능과는 상관없이 체면은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능적이다.

3. 눈치

눈치는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양자 또는 상호가 서로 자신의 의중이나 기타 내적 상태(예컨대, 감정욕구, 이해관계, 판단, 그 밖에 감추고 싶은 것 등)를 상대에게 직접 노출하지 않을 때 간접적 단서나 상황으로 미루어 상대의 내심을 추론 내지 짐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눈치와 관련된 한국인의 특성으로 자주 지적되어 온 것은 자아은폐(오세철, 1979; 이규태, 1977; 차재호, 1983; 최재석, 1976)와 체면(김재은, 1987; 윤태림, 1971; 이규태, 1977)이다. 눈치는 자아은폐 및 체면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자아은폐 동기가 있을 때 직접적 자기노출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체면의식이 활성화될 때 진정한 자기가 있는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눈치는 자아은폐 및 체면현상과 밀접히 관련된 현상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눈치가 한국인에게 발달한 이유는 첫째, 한국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꺼려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윤태림, 1971), 둘째, 한국인은 솔직한 의사전달이 결여되어 있고, 내 의도를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강하며(이부영, 1981), 셋째, 한국인의 의사소통이 우회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남이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뿐더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오세철, 1979). 차재호(1983)도 눈치의 현상을 유교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한국인은 주변사람과 어긋나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려 하며 타인의 생각에 신경쓰는 경향이 높으며,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구사회는 남에게 자기를 노출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는 심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발달된 반면, 동양사회는 자신을 은폐하거나 감싸는 심리와 더불어 그러한 심리를 알아내려는 노력과 매커니즘이 발달한 사회이다(이규태, 1977). 즉, 북미 서구인은 공적 자기충이 두꺼운 반면 동양인은 사적 자기충이 발달하여 동양인은 서구인에 비해 더욱 은폐적이다.

동양인에게 있어서 대화에서 오고가는 정보와 사실의 포착보다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복선으로 깔린 표현되지 않은 정보와 사실의 포착이 더 중요하다(최재석, 1976). 따라서 상대방, 특히 상위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치가 발달한다. 즉, 상대의 기분과 체면을 한국인은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눈치가 발달되어 있다(박종삼, 1985).

이와 같이 한국인의 특성의 하나로 눈치가 자주 여러 연구에서 언급된 것이 사실이지만, 타인과 은밀하고,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눈치(최상진, 최연희, 1989)는, 상하관계가 명확하거나 피상적인 관계에서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동아시아인에게도 나타난다. 특히 일본에서 ‘눈치가 빠르다(機(きてん)がきく)’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 되기도 한다. 반면 눈치가 없는 사람은 일본사회에서 ‘우도이(うとい)’라고 하여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순박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Nam & Han, 2009b). 따라서 문화

가 있는 곳에,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에 눈치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눈치현상은 필수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왜 눈치를 보고, 보이며, 어떤 눈치가 활성화되는가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박종삼(1985)은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면 상대의 기분이나 자존심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자신의 진실을 은폐하게 되고 따라서 상대는 숨은 의도를 눈치를 통해 읽을 필요가 있게 된다고 하였고, 이부영(1981)은 한국인은 직접적인 표현을 부덕시하므로 솔직한 의사전달이 결여되어 있고 내 의도를 상대가 스스로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강조하였다. 오세철(1979)은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특징은 우회적인 표현이며 이는 상대가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려는 것이며, 우회적 표현은 상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한국인이 눈치가 발달한 이유는 자신의 의중을 은폐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규태(1977)는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사적 자기를 은폐하려는 의식 때문에 한국인의 행동은 예의라는 규제에, 대화는 형식적인 구제에 매이게 됨으로써 본심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인은 통찰력을 통해 대화나 행동 속에 담긴 의도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이규태, 1977).

그러나 눈치신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상황, 사람,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상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눈치신호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지니며, 눈치보내는 자와 눈치를 읽는 자간에 상응적 눈치소통, 즉 눈치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통의 심리적 상황맥락, 즉 신호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가를 해석할 때 이들이 사용하는 공통의 상호작용 맥락을 가져야 한다.

눈치는 사적인 내심을 보이고 읽는 과정이므로 객관적인 언어와 달리, 의도와 같은 심리적 과정을 지각자가 공감하는 과정이 함유되므로 주관적 상호일치성을 바탕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또한 눈치는 사회적 또는 사적으로 일정한 관계에서 또는 사태적으로 의미할 수 지워진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에, 어느 한쪽 또는 양방이 본심을 직접 노출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상황에서, 불분명, 불충분 정보단서나 위장 또는 왜곡된 정보단서를 보고, 상대의 내심을 읽는 일, 과정 또는 현상이나, 그 역의 현상, 즉 눈치를 보이는 현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눈치상호작용분석은 감정공유, 직관적 통찰과정 등과 같은 현상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연구목적

체면과 눈치와 같은 대인교류의 심리적 기제는 동일 유교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5개국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다를 것이며, 각 사회문화 속에서 기능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한족, 조선족), 일본, 베트남, 필리핀 사회의 대인관계에서 체면과 눈치가 어떻게 작용하고 각 문화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화간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분석한 후, 한국의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체면과 눈치의 작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면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생활의 적응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2.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눈치는 어떤 의미를 지니며,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생활의 적응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일본 12명, 중국 10명, 조선족 11명, 베트남 10명, 필리핀 11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총 54명이었다. 각 국적별로 선별된 연구참여자 54명은 거주기간(2년 전후)에 따라 5명 내외씩 두 집단으로 나뉘어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거주기간에 따라 면담집단을 구분한 것은 이주자 적응에 관한 기존문헌에서 이주자가 적응과정상 심리적, 사회문화적 안정기에 들어가기에는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보고에 근거한 것이며,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최소한 2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순현(2010)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5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거주기간 2년을 전후하여 국적별로 적응초기집단과 적응안정기집단으로 나뉘어 각각 초점집단면담에 참여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참여자 번호	연령	거주 기간	결혼 경로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참여자 번호	연령	거주 기간	결혼 경로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참여자 번호	연령	거주 기간	결혼 경로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일본 1	38세	1년	종교	고졸	100- 200	중국 6	37세	3년 2개월	지인 소개	고졸	100- 200	베트남 4	27세	1년 7개월	지인 소개	고졸	100- 200
일본 2	35세	1년 5개월	종교	고졸	200- 300	중국 8	34세	3년 3개월	지인 소개	고졸	300- 400	베트남 5	26세	1년 3개월	중개 업소	중졸	300- 400
일본 3	27세	1년 8개월	종교	고졸	100- 200	중국 9	31세	4년 3개월	연애	전문대 졸	100- 200	베트남 6	23세	2년11 개월	중개 업소	초졸	모름
일본 4	37세	1년 10개월	종교	전문대 졸	200- 300	중국 10	34세	3년 1개월	중개 업소	고졸	400 이상	베트남 7	24세	3년	지인 소개	초졸	100- 200
일본 5	28세	1년 6개월	종교	전문대 졸	모름	조선족 1	31세	2년 7개월	연애	고졸	100- 200	베트남 8	22세	2년 8개월	지인 소개	고졸	100- 200
일본 6	43세	13년	종교	고졸	100- 200	조선족 2	23세	1년 11개월	중개 업소	중졸	100- 200	베트남 9	25세	2년 10개월	지인 소개	고졸	100- 200
일본 7	47세	12년 9개월	종교	고졸	200- 300	조선족 3	25세	1년 5개월	지인 고세	중졸	100- 200	베트남 10	27세	4년 11개월	지인 소개	중졸	100- 200
일본 8	49세	13년	종교	고졸	100	조선족 4	47세	2년	지인 소개	대졸	100- 200	필리핀 1	21세	4개월	종교	고졸	모름
일본 9	43세	16년	종교	고졸	100- 200	조선족 5	36세	2년 7개월	지인 소개	대졸	100- 200	필리핀 2	24세	5개월	연애	대졸	100- 200
일본 10	44세	15년	종교	고졸	100- 200	조선족 6	27세	6년 4개월	지인 소개	고졸	300- 400	필리핀 3	32세	1주일	중개 업소	대졸	모름
일본 11	35세	12년 9개월	종교	고졸	400 이상	조선족 7	39세	3년 7개월	지인 소개	대졸	100- 200	필리핀 4	25세	6개월	중개 업소	대졸	100- 200
일본 12	39세	10년	종교	대졸	100- 200	조선족 8	39세	13년 4개월	기타	대졸	200- 300	필리핀 5	26세	1년 5개월	지인 소개	대졸	400 이상
중국 1	23세	6개월	중개 업소	중졸	모름	조선족 9	27세	5년 5개월	지인 소개	중졸	100 미만	필리핀 6	34세	9년 2개월	종교	전문대 졸	100 이하
중국 2	33세	10개월	연애	고졸	100- 200	조선족 10	36세	9년 9개월	지인 소개	전문대 졸	200- 300	필리핀 7	35세	6년 9개월	지인 소개	전문대 졸	100 이하
중국 3	27세	2년	연애	중졸	200- 300	조선족 11	34세	11년 7개월	연애	대졸	300- 400	필리핀 8	25세	3년 3개월	중개 업소	고졸	100 이하
중국 4	29세	1년 4개월	중개 업소	중졸	100- 200	베트남 1	24세	2년	중개 업소	중졸	100- 200	필리핀 9	26세	4년 2개월	중개 업소	대졸	100 이하
중국 5	26세	8개월	중개 업소	중졸	모름	베트남 2	26세	1년 8개월	지인 소개	중졸	100- 200	필리핀 10	30세	6년 4개월	기타	대졸	300- 400
중국 6	34세	4년 1개월	지인 소개	중졸	100- 200	베트남 3	22세	1년 4개월	지인 소개	중졸	100- 200	필리핀 11	28세	6년 5개월	중개 업소	전문대 졸	100 미만

면담시기는 2009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
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었
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일본, 중국, 조
선족, 베트남, 필리핀 5개국 54명의 여성결혼

표 2. 원자료 Giorgi 범주화작업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체 면	정의	얼굴	자존감, 자기 삶, 간판, 삶의 활력소, 생김새, 첩판, 물염치, 자기존중, 낮 세우기, 자부심
		사회적 이미지	인정, 대외적 이미지, 자기간판, 책임, 의무, 소문, 사회적 능력, 신뢰, 약속
	역할	자기방어	가문의 수치, 집안의 영광, 가문지키기, 자존심, 남존여비, 존경, 자신감, 명예, 인품, 도리, 존엄성
		자기과시	허세, 허영, 낭비, 능력, 사치, 선물, 금전적 체면, 체면치레, 포장, 허례허식, 외모 중시, 자기 가꾸기, 화장, 성공
		사회적 인정	지위, 명예, 권력, 성취, 예의, 한국말, 경력
		체면 세우기	자신감, 자녀에게 위신 심, 본때 보여주기
	기능	체면 지키기	자존감 고양, 치부 들키지 않기, 당당해지기
		체면 세워주기	상대 배려, 상급자 존중, 상사체면 지켜주기, 남편존경, 자녀존중, 시부모 공양
		체면손상	수치, 창피, 자신감 상실, 사회적 낙인, 얼굴 꺾임, 낙담, 할복자살, 인짚음, 우울증, 무시당함, 기분나쁨, 짜증, 인짚음, 민망함, 슬픔, 마음 아픔, 실망, 음주, 외국와이프, 외국머느리, 외국인, 경멸
	사회적 민감성	체면에 민감한 사람들	대통령, 돈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지위있는 사람, 권력있는 사람, 권위자들, 사회생활 많이 한 사람들, 성격이 민감한 사람들, 자존심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어르신, 자존심 강한 사람, 상류층,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한국생활적응문제	잘 살아야겠다, 한국말 배워야 한다, 시어머니 위해 머느리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다, 떳떳하게 살고 싶다, 어깨피고 산다,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 자기비하(예, 메이드 인 차이나)의 언행, 시어머니 내 속 모른다, 직장있어야 한다, 한국음식 잘해야 한다, 자기 일 열심히 한다
눈 치	정의	의중 / 감정공유	눈치빠르다, 마음통한다, 마음 알아준다, 눈빛헤아린다, 상대의 마음 헤아리기
	역할	원만한 사회생활 / 한국생활 적응	한국아가씨 눈치빠르다, 뭐든지 잘한다, 알아서 한다, 상황파악, 빨리 알아서 미리하기, 일을 빨리한다, 살아남기 힘들다, 손발이 빠르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한다
		가족간의 조화	시어머니 마음 헤아리기, 남편이 좋아하는 것 하기, 싸우고 화해하기
	기능	긍정적 기능	이심전심, 알아서 척척 일하기, 가족화목, 조화, 한국생활 적응, 상대의 마음 헤아리기, 경각심, 자존심 보호
		부정적 기능	약사 빠르다, 교활하다, 눈치밥, 바보같다, 잔머리쓴다, 상대에게 피해준다, 눈치준다, 시어머니(상사) 눈치보게 된다, 눈치없다
	사회적 구분	된놈-난놈-못된놈-못난놈	인품이 괜찮은 놈, 눈치빠른 놈 뭐든지 잘하는 놈, 똑똑한 놈, 잘난 척하는 놈 파렴치한 놈 쓸모없는 놈, 눈치없는 놈, 상식이하의 사람

이민자들은 거주기간(거주기간 2년 전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뉘어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에 참여하였다. 조선족을 제외한 모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초점집단면담은 이중언어사용자들의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초점집단면담의 진행 과정은 연구자가 문헌을 통해 철저히 사전에 준비한 내용들을 반구조화하여 면담기록지에 기록한 내용(예, “체면으로 인해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한국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등)에 따라 진행되었고, 면담의 모든 진행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기에 녹음되었다.

3. 자료분석

초점집단면담의 분석은 주로 심층면담 진행표에 따라 ‘체면과 눈치’에 관한 소주제에 대해 출신국가별로 5명 내외씩 총 54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구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매 회기마다 녹음된 내용들은 참여자가 사용한 언어 그대로 전사하여 녹취록을 만들었고, 기술한 자료들은 Giorgi(1985)의 4단계의 텍스트 분리작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면담 내용을 전체에 대한 느낌 파악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둘째, 연구목적의 특정 주제에 맞춰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의미단위’를 구분, 셋째, 의미단위 구분 후 일상적 표현을 심리학적 용어로 전환, 넷째, 의미단위들에서 공통된 경험을 묶어서 하위구성요소들을 추출한 후, 전환된 의미단위들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험을 조직적 기술로, 현상을 구조적 기술로 통합하였다. 4단계 분리작업에서 주의

하여야 할 점은 1단계에서 연구자가 녹취된 내용을 읽을 때 연구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자료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자의 경험에 대한 괄호치기(Bracket)를 함으로써 연구자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7개 의미단위가 만들어졌고, 총 8개의 구성요소와 17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4. 연구의 엄격성

Lincoln과 Guba(1985)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써, 신빙성, 재연가능성, 신뢰성 및 확증성의 확보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기록 이외에 전화면담내용, 연구참여자와의 문자메시지, 연구일지 및 사전적 정의와 문헌고찰 등 자료출처의 다양화를 통한 삼각화(Triangulation)와 심리학전공 박사 2인의 동료보고(Peer Debriefing)를 통하여 신빙성(Credibility)을 확보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한국과 자국문화적 경험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풍부한 원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재연가능성(Transferability)을, 자료수집과 분석관련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감사흔적(audit trail)을 남김으로써 신뢰성(Dependability)을, 연구자의 과거 지식을 괄호치기(Bracket)함으로써 확증성(Confirmability)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5. 연구윤리

질적 연구는 통제가 불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연구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Padgett,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사전참여동의서를 받았고, 둘째, 연구자가 충분히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면담도중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지해 줌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IV. 연구결과

1.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면에 대한 의미와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에의 작용

동아시아 5개국 여성의 체면의 의미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특징으로써 체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획득된 다양한 현상들 중에서 가장 공통된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Giorgi, 2003). 본 연구결과 도출된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기술로 정리하여 체면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체면은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고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혹은 존엄을 의미한다. 또한 체면은 타인에 대한 배려일 수 있는데, 이는 상대에 대한 체면을 세워주는 행위에서 엿볼 수 있다. 체면은 세워야 할뿐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으로써 체면의 손상은 곧 창피나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유발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일본여성과 체면의 의미.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면은 프라이드이고, 한국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자신감이었다.

“개인의 프라이드 ... 한국보다는 일본이 그 멘ツ(menz)에 대해 프라이드 좀 생각 안한다. 아, 일본이 깊게 생각 안한다. ... 자신감이 생겨요(일본여성 3).”

“어느 정도 세워지는 건 괜찮은 거 같아요. ... 전혀 없어도 평범한 삶을 살다더라도 또 우울증도 많이 생길꺼 같아요. 근데 멘츠있고 그러면은 자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삶의 활력소가 되가지고 더 좋게 ... 있다가 없어지면 힘들꺼 같아요. ... 필요한 거 같은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해요(일본여성 2).”

그렇기 때문에 체면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동의하였다.

“사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치, 정치하는 사람들 체면이 중요

하죠. ... 명예있는 사람, 지위있는 사람, 그리고 내면에 마음 보다 외적인 사회적인 그 지위를 중시하는 사람(일본여성 2).”

“지위가 있고, 권력있고, 돈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고, 실패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일본여성 8).”

따라서 일본여성들에게 체면은 사회적 성취를 의미하는 권위와 능력으로 평가되는 외적 자기를 나타냄으로써, 일본사회에서 체면을 나타내는 *メンツ(menz)*는 얼굴보다는 사회적 이미지를 의미했다.

조선족 여성과 체면의 의미. 조선족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체면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허영, 자기과시, 사치,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 발생하는 자기과시적인 측면이 강했다.

“체면 많은 거 같아요. ... 그러니까 허영심이라고 할까? 체면은? 글썽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만큼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거 하기위해서 모든 수단 안 가리고 그러는 거 같아요. ... 사치가 엄청 심해요. 이렇게 한국오고 가면서 지금은 더 심한 거 같아요. ... 체면 많이 내세우고 얼굴깎인다고(조선족여성 3).”

“우리가 이렇게 뭐 언니한테 고마운게 있으니까 선물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안

받아요 하면 더 이상해요. ... 아까 언니가 그런가보다 하고 해주지만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는데 ... 고맙게 받고 ...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돼서 월급도 얼마 준다고 하면 그냥 막 처음에 월급 돈에 대한 얘기가 꺼내기가 그렇잖아요. 알아서 주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 했던 거 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조선족여성 5).”

“체면중요하죠. 체면이 없으면 그 사람 좀 무능력해 보이지 않나요? 체면이 있다기보다 지킨다고 봐야죠(조선족여성 2).”,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금전적으로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집에 진짜 쥐뿔도 없다고 봐야 될까? 그래도 나가면 짹 빼입고 가고, 체면을 세울라고 그러는. ...(조선족여성 11).”

“체면은 그냥.. 예의... 어느 선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체면. ... 일단 예의를 말하는 거 같아요. ... 자기할 도리라고 생각해요.. 할 도리를 다 못했을 때 내가 그 어떤.. 사회나 가정에서 떨어져요. 내가 인간 노릇을 못해. ... 자기위치나 자기권위가 무너지는 거 같잖아요. 체면이(조선족여성 5).”, “간판이라고 생각해요 체면. ... 자기 간판(조선족여성 9)”, “우선은 내 인성에 관한 거. 책임감, 의무감? ... 내가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이제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조선족여성 8).”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는 적응 초기 조선족여성들은 능력은 없으나 허세로 자존심에 손상을 입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적응안정기 조선족 여성들은 권위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고 하였다.

“보통사람은 경제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못 따라가니까. 그럼 자존심 없어서 ... 특별히 조선족 남자는 진짜 돈도 없지만 일도 조선족 남자는 어려운 일은 또 못하고 공부 그만큼 못하고 쉬운 거 하면 또 돈 조금 벌어서 하기 싫고. 그런 사람 진짜 중국 말 있어요. ‘한 병 물도 안 찾는데 반 병 물로 혼든다.’(조선족여성 4).”

“체면중시하는 사람은 ... 권위자들? 결국 그런 사람들인 거 같아요. 권위있는 사람. ...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 그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조선족여성 10).”

따라서 조선족여성들에게 체면은 자기현시적이고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는 사회적 이미지의 측면이 보다 강했다. 한국 거주기간 2년 이상 조선족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능력체면도 중시했지만 도덕적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판’이란 표현을 통하여 面子(mian zi) 능력 못지않게 한 개인의 도리로서 臉(lian), 즉 얼굴을 중요하게 여겼다.

중국여성과 체면의 의미. 한국에 거주하

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들은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체면을 面子(mian zi)라는 사회적 체면과 臉(lian)이라는 인격체면으로 구분하였고, 미안쓰와 리엔을 자존심과 얼굴에 비유하면서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중국인에게는 자존심에 해당하는 미안쓰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국사람 체면 제일 중요해요. 똑같아요. 근데 한자가 다르거든요. 뜻이 달라서. 미안쓰라는건 존경하고 그럴 때 ‘체면세우다’ 라고 하고 리엔이라는 거는요. 어떤 가게를 했을 때 가게 간판처럼 한 사람을 포장하는걸 말해요. ... 지켜져야 하는 거. 미안쓰는 세워줘야 하는거고요. 항상(중국여성 3).”

“미안쓰, 최고예요.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스 제가 많이 받아서 내 친구한테 이야기 하면. 미안쓰 때문이에요. ... 체면하고 얼굴은 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 리엔은 얼굴. ... 자존심이에요. 사실은 미안쓰는 자존심이에요. ... 그냥은 자존심은 항상 얼굴이 빠져요. 미안쓰와 리엔 둘 다 중요하지만 자존심 미안쓰가 더 중요해요. 다 체면인데 미안쓰는 큰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리엔은 작은 사소한 일에서 내가 체면 깎일 때를 말해요. 리엔은 사소한 일에서 얼굴이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중국여성 10.)”

중국인에게 체면은 “자존심”을 의미하였고,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만 같은 동포로서 중국인에 대한 “존엄성”이 바로 체면이었다. 따라

서 중국인은 체면을 모르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같은 사람이라고 하였고, 체면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주기간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냥 온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뻔뻔스러운거, 바보같은 사람. ... 많이 심해요. 바보처럼 살면은, 혼자 있으면 아마도 바보 같은 사람은, 체면을 안 살리려고 하는데, 파렴치한 사람은 다 그런거 아니고 한 번쯤은 세울 때도 있어요(중국여성 5).”

“성격 민감한 사람, ... 경제력이 떨어져서요. 부러워요. ... 자존심 없는 사람. ... 완벽한 사람(중국여성 1).”

“부자, 돈 많이 있어서. ...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어르신들, 자존심 강한 사람(중국여성 10).”

베트남여성과 체면의 의미.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면은 얼굴과 마음을 모두 의미하는 자존감과 같은 것이었고, 베트남에서 체면은 여성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남성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사회생활에서 체면은 그 사람의 됴됨이이며 신뢰와 같은 것이었다.

“여자보단 남자들이. 남자들 체면이요. 예. ... 떨어지면 그 직장. 직장있는 사람들이 도우면. 체면없다는 것은 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다 똑같은데. 남자가 체면이 최고야(베트남여성 3).”

“유교사상이예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 남존여비. 옛날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집안은 여자들이 더 강하죠. ... 근데 밖에는 남자가 더 강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 권위, 뭐, 이런거, 사회적인 체면? 사회생활 할 때 남자들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취직할 때부터 성공할 때까지 그런 과정에서. 체면이 없으면 그런 과정을 완성할 수 없다. 승진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취직할 때부터 경력, 경력을 쌓는데 체면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해요(베트남여성 9).”

따라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해요, 약속을 잘 지켜야. ... 기분나쁘면 체면 떨어지죠. 예. ... 약속 지키면 괜찮은거예요. 약속을 잘지킨다는게 신뢰가 있어야 된다(베트남여성 7).”

필리핀여성과 체면의 의미.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면(dignidad, dignity)은 자존심이었고, hiya와 amor propio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아까 말한거처럼. 프라이드. 이런 사람이 가야되는데 도와줘야하는데. 그런거 때문에 가지고 있으니까. 히야. 히야는 깎이는 거고. 아모르 프로피오는 잘. 그냥 프라이드.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모르 프로피오
...(필리핀여성 11).”

“부끄럼 없는 것. 아주 친한 친구들이
그런 표현을 서로 큰 악의 없이 쓰기도 하
지만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필리핀여성
4).”

적응초기 필리핀여성들은 상류계층일수록
체면에 민감하다고 하였고, 적응안정기 필리
핀여성들도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적 명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아주 부자인 사람들 하이클래스 사람
들이 체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거 같다.
그 사람들이 아랫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체
면이 깎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 대학에서 디리단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사람을 보기는 힘들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필리핀 사람들이라는 자부심(필리
핀여성 2).”

동아시아 5개국 여성의 체면과 한국생활 적응

일본여성의 체면과 한국생활적응. 한국의
거주기간 2년 이하의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본사회에서도 체면이 중요하지만 오늘날에
는 옛날처럼 중요하지 않다고 한 반면,

“풍습이 여자는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
는 밖에 나가서 일한다. ... 부모님의 세대

때는 체면을 강하게 느꼈는데 지금의 우리
사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안해요(일
본여성 2).”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일본여성결혼이민
자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없으
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멘츠가 켜
면 한국어도 못배우죠. 배우지 못해요. ‘자
기나라 자기 말 우리다’ 라고 생각하니까
프라이드가 있으면 배우기가 힘들어요. ...
물들지 않고 자기 삶. 고집이라고 하나(일
본여성 6).”

적응초기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이 부모세대
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과거 가부
장적 사고 때문이라고 하였다.

“남자는 위다. 여성은 아래다. 남성적인
사고 때문에. 나 때문에 집안의 영광이 없
어질 때 가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할복자살이라는 것이 있었다. ... 옛날 그런
거 있었지만 요즘은 사회 풍습이 달라지고
있고 그거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라
강하지 않다(일본여성 5).”

Lebra(1976)는 한국인들에 비해 일본인들은
자기현시성 체면보다 자기방어성 체면을 더
중시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본여
성들은 자기방어적인 체면을 보였고, 가정에
서 자기현시적 체면이 강한 한국인 남편의 체
면을 세워주려고 노력하였다.

“다소 느끼기는 하지만 안한다. 행동까지는 안간다.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나이는 어려도 나보다 윗사람이라면 해야 된다. 나이가 어려도 상사체면에 저 사람이 시키는 일은 내가 하면서 체면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일본사회에서 부부관계에서 ... 그니까 거기서는 부인이 남편 머리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 (일본여성 3).”

“멘츠가 느껴지면 선생님한테 대놓고 잘못했다고 못해요. 선생님은 존경을 받는 게 좋아요. 존경을(일본여성 7).”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체면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거주기간별 차이를 보였다.

“우리로서는 그 체면이 떨어지는 남편을 어떻게 올려줄까. ... 기분이 안좋잖아요. ... 자신감 없어지니까 남자가 기분이 안좋게 되죠(일본여성 1).”

“죽고 싶죠. ... 부끄럽고 ...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또 저기서 떠나고 싶어요. 새로운 환경에 섬에 가서 고기나 잡고. ... (일본여성 8)”, “아이들 앞에서 ... 공부시킬 때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가르쳐줄 수가 있는데... 중학생 때부터는. ... 무시당하는거죠. 사소한 말이라도 무시당하는 거죠(일본여성 11).”

따라서 일본여성에게 체면은 사회생활을 하

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문화를 익히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고, 남편의 체면을 세워 줌으로써 내가 한국에서 더 당당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족여성의 체면과 한국생활적응. 한국의 거주기간 2년 이하의 조선족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중국인들과 동일하게 체면을 臉(lian)과 面子(mian zi)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이미지를 의미하는 面子(mian zi)보다는 면이 깎이는 臉(lian)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국에는 미안쯔, 리엔, 체면은 미안쯔가 확실히 맞아요. 얼굴 체면은 리엔. 이미지는 체면은 갑자기 상대방 앞에 만났을 때 얼굴 체면이죠. 그러면 그거 아까 두 번째 뭐예요? 이미지는 소문난 거 이미지죠. 이미지는 제가 10년 정도 사람 지나가면 이름 남아야 되요. 제가 이런 인생했으니까. 그럼 이미지는 계속 좋은 소식 듣고 새처럼 계속 소리 난다. 그런거죠. 이미지보다 체면 더 중요해요. 이미지는 그거는 사람 사람 따져도 저는 모든 사람 표면상 갑자기 체면 지키는 그거 있죠(조선족여성 2).”

반면에 적응안정기 조선족 여성들은 사람의 도리로써 체면치레를 하지 못할 때 체면이 떨어진다고는 하였지만, 보다 더 중요한 체면은 사회적 능력체면이라고 하였다.

“미안쯔. ...미안쯔가 더 중요해요. 미안쯔가. 따지자면 우리나라 체면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얼굴은 생김새고. ... 그니까 체면하고 생김새하고는 확실히 엄연히 틀린거죠. 틀리죠. 생김새하고 체면은 틀린거죠. ... 중국 사람들은 특히 더 체면을 중시하죠(조선족여성 6).”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체면이 깎였을 때, “기분, 아, 조선족, 다른 사람 물어 봤을 때 말하기 싫어요” 라고 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속상하니까 누구한테도 말도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교회가서 한 없이 울고 왔어요. 다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때 체면이 많이 깎인 거 같아요. ... 기분 안 좋아요(조선족여성 3).”

“좀... 수치스러워요. 그, 보여주기 싫은 그런 어떠한 그런 것이 체면이. ... 조금. ... 뭐라고 말할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좀. ... 민망하고 그렇죠. 민망. 창피하고 민망하죠(조선족여성 7).”

“체면이 없는 사람? 수치나 창피를 모르는 사람? 철판. ... 그렇죠, 철판, 물엿치한 사람.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엿치하다. 물엿치하다고. ...철판. 철판,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조선족여성 9).”

한국에서 거주기간 2년 이하의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생활을 하면서 “조선족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나 “배우자”로 인해 체면이 깎인다고 하였고, 2년 이상의 조선족 여성들은 “자

신이 보여줘서는 안되는 치부를 상대방에게 들켰을 때” 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하였다.

“제가 한국말 열심히 잘 배워요. 발음 한국사람 하고 똑같이 남자 체면도 되고 저도 체면도 되요. 이제 떳떳하게(조선족여성 2).”

“돈 많이 벌어요. 왜냐면 모든 기준이 경제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 자기를 가꾸고 내가 조선족이라고 기죽지 않고 남보다 잘살아야겠다는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제가 잘 살아야 무시 할 수 없잖아요 경제적 인게 체면이 제일 서는 거 같아요(조선족 5).”

“중국 며느리(조선족여성들은 자신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지각하고 있음)라도 잘한다. 그런 말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도 어깨피고”(조선족여성 2).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 집에 딸 멀리 보냈냐고 ... 우리 엄마 항상 많이 속상하고 지금도 이해 못하죠. 우리 어머니 위해서라도 잘 산다. ... 어머니 체면 살려주고 싶어요(조선족여성 5).”

“항상, 우리같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는 거 같아요. ... 배려하죠. 다른 사람들. ... 항상 여기 와서 우리가 잘못할까 봐 조심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더 생각하고 그런 거 같아요(조선족 여성 7).”

중국여성의 체면과 한국생활적응. 중국여성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가장 체면이 떨어졌던 상황은 “중국에 대한 비하” 라고 하였다.

“한국 사람은 중국 안좋아해요. 메이드인 차이나 이런거 얘기하는거 너무 싫어요. 창피해요. 한국보다는 진짜 안좋아 우리도 그건 인정해요. 우리 가족들이 메이드인 차이나 엄청 자존심 상해요. 중국 안 좋으면 안사면 되잖아요(중국여성 2).”

“부모님 체면 떨어뜨린 거는. 난 지금도 이래요. 외국 와이프니까 며느리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할머니들 많이 있는데요. 모였을 때는 이야기할 때는 중국인 왔어. 얼굴이 없어요. 없을 때는 우리 시어머니. 난 신랑집에, 그래. 아, 보내라. 중국보내라, 말을 막해요. ... 한국말을 안잘해도 알아먹어요. 난 아무말 안해요. 왜 그러는지 오래 살았다면 보고. 이 여자 어떤가 그런 것 얘기해 봐요. 지금 방금 왔는데. ... 시어머니가 내 속도 모르고 내가 뭘 생각하는지도 아무 것도 모르니까 함부로(중국여성 8).”

또한 중국여성은 체면이 떨어졌을 때 드는 감정도 다양했다.

“못살아요. ... 화가 나요. ... 기분 나빠

요. ... 슬퍼요. ... 기운 없어요. ... 술도 마셔요. ... 기분 안 좋으니까 미안쓰 없으니까. 술마셔요(중국여성 2).”

“남편한테 항상 물어봐야 되니까. 체면도 깎이고. 남편도 체면이 깎이고 창피하고. ... 저는 한국에 온다면 하고 싶은거 많이 있었는데요... 마음 아프죠. ... 집으로 가고 싶죠. ... 속상해요. ... 실망해요(중국여성 7).”

그렇기 때문에, 중국여성들은 한국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제가 부족하니까. 많이 배워요. 말은 고쳐야 돼요. 한국 왔으니까. 한국사람 맞춰서 한국말도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요. 한국사람 맞춰야 체면이 올라가요. 직장있어야 돼. 제가 스스로 돈을 버는 거 당당하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자신감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정상적으로 얘기 할 수 있고 서로 의견차이나 그런 걸 표현 할 수 있으니까요. ... 그냥 나중에 남편 다른 사람 내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냥 한국와서 한국말, 음식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하면 좋아할 거 같아요.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해요(중국여성 3).”

따라서 중국여성들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체면 때문에 한 거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있어요. 중국에서 남자 결혼하면 집을 꼭 사야 되잖아요. 집사고 가구들 다 놓잖아요. 안 그러면 여자들 시집 안와요. 대출도 하고. 중국에서 결혼하면 남자 측에서 키워준 부모님한테 답례를 하는데 답례비 ... 그런게 있어요. 심해요.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요. 여자 측 부모한테 줘야 되고. 한국하고 틀려요.(중국여성 3).”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빌려야지. 결혼하려면 ... 어느 정도 없는 거는. 체면과 허세 거의 비슷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허세를 대표하기도 해요. 중국은 아파트가 그냥 벽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하거든요. 돈 빌려서 보통사람인데 살 때는 백만원, 이백만원 쓰는 거는...(중국여성 5).”

살아가면서 체면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나 잘해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면. ... 체면 꼭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좋은 건 아니다. 상황 다 틀려서 ... 필요하죠(중국여성 3).”

“체면은 ... 우리는 필요있어요. 여기서 중국에서 보다는.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말. 나는 그거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은 친구 학교에서 지금은 그 같이 한국 아이들이 같이

비교하니까. 그건 미안쓰잖아. 엄마 중국사람이지만 아기가 더 잘할꺼예요. 한국말, 자기 자존심(중국여성 9).”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미안쓰라는 건 풀 수 있는 거 다 풀 수도 있어요. 내 세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준다. 그거는 중요해요. 어디 나가서도 많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없어요. 한국은 어디 나가서는 이 사람이 없으면 돈 있어? 없어? 보여주면 어서오세요! 이런 식. ... 한국에서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는 데, 중국에서는 그 사람의 옷맵시나 그런 거 보면 시골에서 왔으면 좀 매물차게 하고, 있어 보이면 친절하게 대해요(중국여성 3).”

“제가 혼자 개인 일이에요. 제가 중국 다녀왔고요. 친구들을 만나요. 미안쓰 때문이에요. 중국에는 한국가서 돈도 잘벌고 잘 살고. ... 사실은 지금은 중국 더 잘살았어요. 우리는 정 없고 다 없고 창피해요. ... 그러니까요 미안쓰 때문이에요. ... 중국 다녀왔어요.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 중국 사람들이 친구라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안좋은데. 그때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를 안만나요(중국여성 10상).”

베트남여성의 체면과 한국생활적응. 중국

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교전통이 강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면(khuôn mặt(face), đối diện(social image))은 ‘낮이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중국인들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중요하죠. 체면이니까. 우리 부끄러워 않는... 얼굴이 깎이니까. 사람들 체면이 없으면 사람 못살아(베트남여성 3).”

“체면은 얼굴도 마음 한쪽도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 자존심이요. 자신감.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베트남여성 10).”

체면이 깎였을 때 베트남 여성들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기분 안좋아요 기분이 나빠져요 성질이 나요 성질. ... 체면이 떨어지면 남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다. 부끄럽다. 속상하다*(베트남여성 3).”라고 하였고, 사회적으로 체면에 더 민감한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생활을 하면서 체면이 떨어졌던 상황에 대해 얘기하면서 남편의 체면을 꼭 지켜주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저 그냥.. 무슨 행동으로 좋은 행동하고. 나쁜 행동 하지 않고. 좀 잘못된거나 나쁘다 그래서 실수한거. ... 가볍게 실수하거나 뭐, 이런거 통해서. 한국어 공부하는데 지각하거나 숙제를 안내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야단맞잖아요. 그래서 체면이 떨어진다.

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베트남여성 5).”

“남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시켰는데 노래 못하니까(베트남여성 7).”

“남편한테 항상 얘기해줘요. 남편이 최고예요. 남편이 항상 대범해요. ...항상 최고예요.(베트남여성 10)”

“한국말 잘하고. 예. ... 같이 다 잘해줘요. 얘기 체면. 왜냐면 엄마가 외국사람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베트남여성 3).”

아울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베트남여성에게 체면은 꼭 지키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필요하죠. 필요해요. 자존심 없으면 밖에 나가면 못살 것 같아요(베트남여성 2).”

필리핀여성의 체면과 한국생활적응. 필리핀여성결혼이민자들은 체면이 손상됐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walang hiya)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였다.

“히야는 창피. 왈랑히야는 좀 나쁜거. 만약에 가족. 얘기를 가졌다. 남편 없어. 그러면 히야. 부끄럽다(필리핀여성 3).”, “나쁜 사람, 이 새끼들 그거, 개새끼, 새끼야, 나쁜 말, 나쁜 놈...(필리핀여성 6).”

또한 필리핀여성결혼이민자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존경이 중요하지만, “존경, 본인 스스로가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는거(필리핀여성 7)” 한국인들이 필리핀여성들의 체면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한국 이렇게 처럼 우리 필리핀 사람 덕리단 좀 지켜 ... 우리 덕리단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거 느끼는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 LOOKDOWN당하잖아요. 그거 안보게. 우리는 덕리단을 지켜... 덕리단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필리핀여성 2).”

2.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눈치에 대한 의미와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생활적응에의 작용

동아시아 5개국 여성의 눈치의 의미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을 하면서 눈치는 꼭 필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였으며, 한국문화와 한국어가 서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눈치보는 상황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즉,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기술로 정리하여 눈치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눈치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반드시 필요한 대인교류기제로써 가족의 화목과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

한 중요한 의사소통인 동시에 중요한 타인과 이심전심의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통로이다.”

일본여성과 눈치의 의미.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눈치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사회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었다.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있어요. 눈치. 내가 아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해드리고 싶다(일본여성 1).”

“눈치빠른사람 좋아하죠. 뭐, 눈치없는 사람. 우토이 동강데스네. ... 한국에서는 눈치, 눈치 하는데. 일본에서는 기텐 기텐이라고 말 안해요. 눈치가 빠르다가 한마디로. 기텐가기꼬. 한국 아가씨들은 눈치가 참 빠르다라고 느껴요. ... 알아서 하고. 일본사람들은 못해요 ... 시어머니는 답답하죠. 1을 하면 1밖에 모르니까(일본여성 12).”

따라서 눈치는 가까운 사람과의 마음교류, 즉 이심전심(以心伝心, いしん-でんしん)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이심전심의 눈치가 활발히 작동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심전심을 통하여 같은 민족끼리 한국생활에 대한 신세한탄과 같은 것은 성장하면서 일본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일본인들은 혼네와 다테마에에 대

한 구분이 강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타인에게 들추어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반면에, 한국인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풀어내서 뭔가 해결책을 구하려는 경향이 강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이심전심이 되요. ... 조금씩은 다 있어요. 맞아요. 더 살다보면 더 아마 말이 안통해도 될 거예요. ... 그거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사오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일본여성 3).”

“마음이 말을 안해도 통하는거. 뭐 먹고 싶다하면 삼겹살 사러가면 남편도 먹고 싶다. ... 친구랑 무슨 일 있을 때 우연히 전화하고 만나고 싶은데 저쪽에서 먼저 전화오고 만나거나 우연히 만나서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났대(일본여성 7).”

“마음 속에서는 느낄 수도 있지만은. 한국 사람처럼 아이고 아이고는. ... 아니, 그렇게 안배워봤어요. 마음 속에서만 내 마음하고 얘기하는거죠(일본여성 11).”

조선족여성과 눈치의 의미. 조선족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눈치는 필요하고, 눈치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제이며,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필요해요. 비슷한 거 같아요. 집에서 부모님 싸웠을 때 상황파악을 잘 해야 하

는 거. 동생이 잘못했을 때는 감싸줘야 할 줄도 알아야 하고(조선족여성 4).”

“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그런 거 같은데. ... 저희 회사에서도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이제 내가 적극. ... 눈치를 빨리 알아채 가지고 미리서 해놔야 또 뭐라고 안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사람이 시켜서 하면은 저기 ... 뭐랄까. 막. 일할 기분이 안나고. 내가 미리서 눈치 봐가꼬 미리서 해줘야. ... 저도 그 집단에 소속이 되려고 가잖아요. 근데 항상 어떤 곳에 물이랑게 있잖아요. 굉장히 눈치 그 이상으로 경각성을 높여서(조선족여성 9).”

조선족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을 하면서 아직은 이심전심이 잘 안되지만, 살아가다가 보면 이심전심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다.

“같이 지내는 사람은 가능할꺼 같아요. 그 사람이 말이 적어졌다 그러면 집에서 뭐 싸웠거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다. 그런 거는 가능할꺼 같아요. ... 속상하고(조선족여성 1).”

“이심전심?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요? ... 그 사람 마음을 아니까 눈치로 했으니까 마음도 통한다(조선족여성 8).”

중국여성과 눈치의 의미. 중국여성들은 눈치(眼色, yan se)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

단이며 사회생활하는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자존심 보호하려고 ... 눈치보고 상황 판단. 내가 일을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 눈치보고 한국 말 몰라요. 눈치 봐야만 내가 맞나 틀리나 판단하니까(중국여성 2).”

“눈치. 중요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얼굴 어떻게 해요. 화나서 기분 좋아 다 몰라요. ... 상대방 볼 때 어떤 눈빛인가 중요하고.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눈치보고(중국여성 7).”

하지만 중국여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자신들은 그렇게 눈치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있어요 못해요 네. 조금 ... (중국여성 1)” 눈치가 발달하면 좋다고 하였다.

“눈치 있으면 좋아요. 신랑 같이 살아요. 신랑 화났어요. 눈치 잘 못 봤어요. 그럴 때 안 좋아요. 눈치 봐야 되요(중국여성 1).”

“집에서는 그냥 시어머니 같이 한국말도 못해 눈치도 못해 바보 같아요. 눈치 있으면 시어머니 뭐해요(조선족여성 3).”

“눈치 보면 아줌마 이거 필요 하구나 가져다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일하기가 힘들어요. 똑같아요. 눈치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어요 ... 같이 살면서 눈치 잘보고 이렇게 눈치 볼 줄 알아야 가족 화목행복

을 위해서 ... 한국말도 못해요 같이 있으면 필요해요. ... 제가 알기로는 손발이 빠르면 무슨 일이든 잘 풀 수 있다고. 잘 풀린다고(중국여성 5).”

베트남여성과 눈치의 의미.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눈치(tình ý, nhận thấy)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요하죠. 한국 결혼와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으면. 시어머니 그 맘에가. 아, 맘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요. 예, 꼭 그래야 되요(베트남여성 3).”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이렇게 스스로 눈치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겠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눈치가. 자기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일수록. 눈치를 더 보게 되죠(베트남여성 10).”

필리핀여성과 눈치의 의미. 필리핀여성결혼이민자들은 눈치가 없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어느 사회에서나 눈치(nakakairita, guess one's thinking)는 중요하다고 하였다.

“눈치가 필요해요. 눈치는 좋은 거. ... 파키키사마 하지 않는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다. ... 긍정적으로 .. 좋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쁘게는 저 사람 왜 미리 알고는. 미리 상황파악하고 미리 알

아서 부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키키사마는 많이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다. ... 하지만 파키키사마가 없는 사람은 상식이하의 사람이다(필리핀여성 5)."

"많아요. ... 손으로 이렇게 받을 때 눈치 보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 그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 잘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 자요! 그것도 다 눈치예요 ... 지금은 다 좋아요. 지금은 다 ...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필리핀여성 7)."

동아시아 5개국 여성의 눈치와 한국생활 적응

일본여성의 눈치와 한국생활적응.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눈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강조하였고, "정말 눈치가 정말 빨라서, 조금 더 좋아요. 눈치는 있어요. 사람이 결혼하고.(일본여성 2)", 눈치가 빠른 사람은 된 놈, 눈치가 없는 사람은 못한 놈으로 구분하였다.

"못된 놈은 행동이 못된. 못한 놈은 태어날 때부터. 못한 놈이 더 안좋은거 같지 않아? 하지만 우토이는 못되지는 않아요. 못나기는 했지만 고칠 수는 없는거 같아요. 된 놈은 자연적으로. 잘난 놈이라고 하면은 자기이기적인 사람. ... 눈치가 빠르다는 된놈. 잘나다는 말을 좋은 말로 안들어본 거 같아요(일본여성 6)."

한국생활을 하면서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학교모임과 가족이나 친척모임에서 가장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예. 요즘에는 애기들 학교모임. 아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억양이 이상하다 느끼면 싫어할까 생각이 있어도 말이 잘 안되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일본여성 6)."

"오히려 말을 많이 생각 없이 말하는 것보다 행동을 친척들이 왔을 때도 해도 되는 말도 있고, 안되는 말도 있고, 다 생각해서 해야지(일본여성 3)."

"일본에서는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평소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르니까 문화적 차이도 있고. 여기서는 자신이 없어요. 진짜가? 그냥하는 소린지? ...(일본여성 7)."

조선족여성의 눈치와 한국생활적응. 조선족여성결혼이민자들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눈치가 빠른 사람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 좋죠. 눈치가 없는 사람은. ... 눈치가 빨라야 일도 좀 빨리하고. 눈치가 없는 사람은 욕밖에 더 안 먹는 거 같아요(조선족여성 3)."

“네. ... 살아남죠. 사회에서는 눈치가 있어야 살아남죠. 눈치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눈치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지 ... 예. 그런데 여우랑 살아도 곰이랑은 못살아요. (조선족여성 11)”

조선족여성결혼이민자들은 중국에서 거의 느끼지 못했던 눈치를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경계심이 앞서고 과연 어떤 가 눈치보고 학원 갔는데. 처음 갈 때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 학원 다닐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밥을 먹고 사는 거 같아요. 외국에 와서는 한마디로 눈치로 살아야 되요(조선족여성 4).”

“요즘 눈치 좀 있어요. ... 친구 만나니까 중국 사람이야 이런 식? 이럴 때 이 친구 왜 이래 중국 사람도 당당했는데. 어디 가면 다 자신 있겠는데. 이런 식이니까(조선족여성 2).”

“눈치 당연히 있지. 모임에서 어울리고 싶어서 갔는데 ... 우리 신랑 중국인이다. 날 눈치로 가르치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 죄 있는 사람처럼 그거 기분 안 좋아요 (조선족여성 5).”

“돈 쓸 때 눈치 봐야 돼. ... 남의 돈 쓰니까는. 남편 돈 쓰니까. 다 돈 때문에 많이 보죠. 인제 친정부모라도 뭐 사드리면. 시부모 눈치보고. ... 다 눈치 봐요. 비교도

되고. 눈치도 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다 눈치보고. 저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조선족여성 7).”

조선족여성결혼이민자들은 못난 놈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고, 상황에 따라 눈치껏 행동하는 사람이 된 놈이라고 하였다.

“잘난 놈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예요? 잘난 척은. 못된 놈은 좀. 눈치가 좀 압압한. 좀 비열하게 못된 놈 지나치게 하는 거. 못난 놈은. ... 태어나서부터 눈치 없이 자기중심주의로 사는 사람들 상황 파악 안 된. ... 잘난 놈은 눈치 괜찮다? 된 놈은? 최고죠. ... 눈치로는? 눈치 잘 봐요? 상황에 따라(조선족여성 5).”

“못된 놈? 못된 놈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놈이죠. 이 눈치가 없어도 못된 놈. ... 눈치 있으면 안그런 소리했으니까. 못됐지. 눈치가 너무 빨라도 자기가 파묻혀요. 자기가 빠지지. 너무 빨라가고. 자기가 또 당할 때. 못난 놈은 눈치가 없어서 못났지. 못난 놈, 못된 놈 둘이. 눈치가 없으니까 못났죠. 뭘 경쟁할 때 눈치있는 사람한테 ... 못났다고. ... 막 그런 얘기 ... 잘난 놈. 눈치껏 행동하는 사람. 된놈은? 눈치 있으니까 됐지. 나설 때 안나설 때 가리고(조선족여성 9).”

중국여성의 눈치와 한국생활적응. 적응안정기에 있는 중국여성들은 눈치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눈치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눈치 빠른 사람이 나쁜 면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 잔머리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눈치가 빨라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눈치를 보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게 상대방을 눈치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제압한다?(중국여성 7).”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중국여성들이 눈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보지 않았던 눈치를 한국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라 틀리니까요. 말을 잘 못했는데. 눈치도 없고. 말도 잘안하고. 눈치 잘 봐야 돼요. 한국말 잘 못하니까. 속상해요. 나는 이렇게 눈치없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겠다. ... 어떤 말해도 몰라요. 나쁜 얼굴 좋은 얼굴 다 알아요. 눈빛으로. 눈빛이 안 보여요. 진짜 힘들어요. 바보된거 같고. ... 택시탔어요. 택시기사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보는가 말했어요. 택시기사가 저희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희 중국사람인데. 만약 내가 한국사람이었다면 눈치쫓는가? ... 제가 그러니까 눈빛이라는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중국여성 9).”

또한 중국여성들은 살아가면서 남편과의 이

심전심(心有灵犀一点通, 마음이 통하다)이 중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눈치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눈치를 파악하는 것은 관심표현의 한 방법이며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할 때 이심전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냥 눈만 봐도 알아요. 집에서 남편 같이 살아 오랫동안 안 살면서 이게 된 거 같데요. 눈치. 필요해요. ... 읽고. ... 눈치가. 내가 일이 생각 못했을 때는 우리 신랑 생각 했어요(중국여성 3).”

“눈치. 이심전심. 사람은 눈치 보니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뭐 생각하는 거. 눈치보고 그래서 마음도 말 못해도. ...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대했을 때 ... 따뜻한 마음하고, 이심전심을 느꼈어요(중국여성 8).”

중국여성들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 못난 놈이라고 하였고, 된 놈을 좋아하지만 잘난 놈이 눈치가 있다고 하였다.

“눈치, 눈치로 얘기할 때, 눈치가 안 들은 사람한테, 못난 놈. 나쁜 놈. 못된 놈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피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 잘난 놈? ... 된 놈을 좋아해요. 눈치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할 때, 깨끗하게 처리하고. 이 사람 됐다. 잘난 놈은 능력이 있죠. 모든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가

있어요 ... 잘난 놈은 일 시킬 때, 자기 경험도 많이 있어서, 무슨 얘기 듣고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중국여성 7)."

베트남여성의 눈치와 한국생활적응.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어느 정도 눈치는 있지만, 그렇게 잘 발달되어있지 않아서 한국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눈치 안 빠르면 다들 뭐가. 그 어떤 거지. 사람들이 아 무슨 얘기 처음에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얘기하고 우리 눈치 꼭 봐야 돼. ... 얘기도 듣고 배워야 돼요. 눈치 없으면 사람들이 좋지 않아요(베트남여성 5)."

"눈치 없는 것 같아요. 눈치가 없어서 야단을 많이 맞아요. 시어머니한테. 얼굴에. 아, 눈치있으면 얼굴에 다 나오는데 그걸 몰랐어요. ... 베트남어로는 눈치가 없어요(베트남여성 7)."

"제일 처음에 와서 그 사람 무슨 말 하면 잘 몰라요. 그냥 몰라요. ... 있는데. 있는데요. 만약에 눈치 이렇게 다르게 주고, 우리 이렇게 눈치 안 주면 다음에 따름 거 만들어서 다른거 만들어갖고. 그러니 어머니 화나죠. 눈치봐야 돼요. ... 말이 정확하게 안 통하니까. 시어머니가 뭘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면 눈치를 봐야 되죠(베트남여성 9)."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들은 눈치가 발달된 사람들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이심전심(thần giao cách cảm)에 대해서는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잘 이해를 못했지만 필요한 것 같다고 하였다.

"이심전심. ... 예. 남편. 예. 남편이 그 어디서 잘하는 지 그 자기가 집에 있으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또. ... 그런데 이제 좀 모험하는 것은 좀 힘든 거 같아요. ... 저, 이심전심. 아예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이심전심은 아, 당가따따마. 당야따따마지. 처음 들었네요. 처음에 들으니까. 이해 안 가서 얘기 못 했어요. 네. 전 아직 답답해. ... 없었는데. 하지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네, 필요해요(베트남여성 9)."

필리핀여성의 눈치와 한국생활적응. 필리핀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눈치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이심전심(pakikiramdam)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심전심 상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말 아직 못하니깐 눈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그러니까, 그게 파키키란담이야. 상황 적절하게 한 것이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서 상대 마음을 집어보는. 그것이 파키키란담이야(필리핀여성 2)."

"친구 생일! 친구 생일인데 선물 뭐해줄까? 물어봐요. 그런데 친구가 선물은 무슨 선물. 너도 힘든데 ... 그러니까 뭐, 알아서."

사람들이 다 괜찮아. 그러죠. 그 사람도 알잖아요. 마음에 뭐라도 받고 싶다고 ... 그 때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해준다(필리핀여성 11).”

또한 필리핀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 달리, 눈치가 잘 발달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체면과 눈치와 같은 대인관계의 심리적 기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과 자국간의 체면과 눈치의 문화적 특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체면은 모두 중요한 것이었다. 중국여성결혼이민자들은 체면을 모르는 사람은 “뻔뻔하고 바보같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체면은 중요한 것이었다.

일본여성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체면의 중요성은 달랐는데, 한국에서 거주기간 2년 이하의 일본여성들은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반면, 2년 이상의 일본여성들은 체면이 중요하고, 체면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일본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대간의 차이로 보인다. “부

모세대는 체면을 강하게 느꼈는데, 우리 사는 세대는 그렇게 까지 안해요”

Lebra(197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인 아내의 체면은 자기방어적이었고, 한국인 남편의 체면은 자기현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여성들은 한국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애썼다.

한편, 적응초기 일본여성들은 사회적 능력 체면을 중시여긴 반면, 적응안정기 일본여성들은 인격체면을 중시여겼지만, 일본여성 모두에게 체면은 사회적 이미지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의 거주기간 2년 이하의 조선족 여성들의 경우에 체면은 일본인과 달리, 한국인처럼 자기현시적인 측면이 강했다.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조선족여성들은 사회적 능력체면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인격체면도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체면손상은 곧 자신의 얼굴인 간판이 깨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미지를 의미하는 面子(mian zi)라고 하였다.

일본여성들이 자기방어적 체면을 강조한 반면, 조선족과 중국여성들은 한국인들처럼 자기현시적 체면을 중시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에서 소비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에서도 체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연구(김재휘, 김태훈, 전진안, 2008; 이재휘, 2011; 정명섭, 김혜진, 2009; 현선희, 이화석, 2008)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체면에 민감한 사람에서 조선족 여성들은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적응초기 여성들은 능력은 없지만 허세로 자존심에 손상을 입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적응

안정기 여성들은 사회적 권력자라고 하였다. 이는 조선족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자존심을 다치지 않으려고 초기에 허세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였고, 현재는 권력을 갖춘 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중국여성들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체면을 얼굴체면(lian)과 사회적 체면(mian zi)으로 구분하였다. 중국인에게 체면은 그들의 자존심이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포로서 중국인에 대한 존엄성을 의미했다. 따라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중국여성들에게 중국인 비하는 심하게 그들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여성들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세도 부리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체면은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중국여성들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체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었다. “*최고예요. 제일 중요해요. 체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중국인들은 존엄하기 때문에 체면을 지켜야 해요.*”

유교적 영향이 강한 베트남여성들에게도 체면은 중요한 것이었는데, 체면은 그들의 자존심이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신뢰와도 같은 하나의 약속을 의미했다. 베트남 여성들에게 체면은 일본, 조선족, 중국여성과 달리, 도덕적 인격체면이었고, 체면이 손상되면 얼굴이 깎이기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체면은 ‘낮이 선다’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적 자기이며 도덕적 인격인 얼굴에 해당되는 자신과의 약속, 즉 ‘신뢰’였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여성들에게 체면은 그들의 자존심이고, 체면이 손상되었을 때 사회에서 몰염치한 사람(walang hiya)으로 낙인찍힐 정도로 체면은 중요했다. 또한 필리핀여성들은 한국인들이 필리핀여성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수치심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필리핀여성들에게 체면에 민감한 사람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한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적응초기의 필리핀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거나 권력자들에게 체면이 더 필요하다고 한 반면, 적응안정기 필리핀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체면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집단적 특성일 수 있는데, 적응안정기 필리핀여성들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혼과 사별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일 수 있다.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모두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자녀양육과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민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고, 보다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익혀야 하며, 경제적 부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체면이 손상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주기간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국적별 차이를 보였는데, 일본이 자살이라는 가장 강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과 베트남은 귀국과 창피, 필리핀은 수치와 사회적 낙인, 조선족은 얼굴이 깎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체면손상에 대한 서구인의 감정반응을 연구한 Goffman(1959)은 체면손상을 단순한 당황

(embarrassment) 차원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창피나 수치심 심지어 심리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감정손상을 유발한다(유민봉, 심형인, 2011)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체면손상은 치명적인 정서반응을 초래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체면을 중시여기는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체면손상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체면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문화 특유의 현상은 아니며, 동서양 문화권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Ho, 1976; Hu, 1983). 따라서 모든 문화권에서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체면을 유지하고 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면은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Brown & Levinson, 1987), 동서양에 있어 체면은 개념상 상당한 차이(Bond & Hwang, 1986; Kim & Nam, 1998)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도 그 개념과 기능, 더 나아가서 영향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 5개국 여성들의 눈치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눈치가 빠르다(機(き)てん)がきく’는 말이 하나의 미덕이라고 할 정도로 눈치라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인 반면, 눈치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うとい)이라고 하였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우리말의 눈치에 해당하는 정확한 단어가 없을 정도로 눈치기제는 발달되지 않았고, 중국사회에서도 눈치는

일본에서처럼 활발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국에 눈치기제가 잘 발달되지 않은 중국과 베트남여성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본여성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눈치를 통하여 부부관계에서 이심전심을 나누고 있었고, 적응안정기 일본여성들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도 이심전심을 교류하고 있었다.

조선족여성의 경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집단원으로서 소속되기 위해서 눈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조선족여성들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눈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여성들은 중국에서 활발히 사용하지 않았던 눈치기제를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생활의 적응기제로 작동시키고 있었다. 일본과 조선족여성과 달리, 적응안정기에 있는 중국여성들은 한국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눈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조선족여성이 살아가면서 이심전심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한 반면에, 중국여성들은 눈치는 관심의 한 표현이고 진심은 곧 이심전심으로 통한다고 하였다.

베트남여성들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베트남사회에서 잘 살피지 않았던 눈치를 한국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심전심을 경험해본 적도 없었다.

적응초기 필리핀여성들은 눈치로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을 상식 이하의 사람을 치부할 정도로 눈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반면, 적응안정기 필리핀여성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너무나 많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동아시아 5개국 여성들에게 눈치기제는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이고, 특히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얼굴로 표현되는 비언어적 메시지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다. 언어적인 문제를 보인 필리핀과 베트남여성을 제외한, 일본, 조선족, 중국 여성들 모두 눈치가 없는 놈은 못난 놈으로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눈치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눈치는 거의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하였다.

눈치가 없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어리석고 바보같은 사람이라고 하였고, 필리핀에서는 이심전심을 모르는 사람을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고 치부할 정도로, 동아시아 5개국 여성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눈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눈치기제는 국적에 따라 그 중요성과 강조함이 경중을 보였지만, 동아시아 5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눈치기제를 활발히 발달시키고 있었고, 현재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과의 이심전심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언어가 서툴고 상황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눈치 보고, 눈치를 살피는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개인의 관계성, 집단관계성 및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한다(Markus & Kitayama, 1991). 이렇게 집단주의적이고 유교적 사상이 강한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회적 교류과정에서 눈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눈치는 본심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함축하거나 위장, 왜곡된 정보 단서를 전달하는 상대의 의도 혹은 내심을 파악하는 과정, 혹은 그 역의 과정이나 현상 또는 능력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권처럼 타인배려적이고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직접적이고 자기주장적인 표현방식보다는 간접적이고 수동적·직관적인 표현방식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서툰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사소통방식 속에서 본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함축적,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상대가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하거나, 역으로 상대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의 본심을 읽고 알려고 하는 눈치기제가 더 활발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문화특성이라고 할지라도 동일 문화권에서 국적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체면과 눈치는 모든 나라에서 생활하는데 존재하는 대인관계 교류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화권에서도 국적별로 한국인의 문화정서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동아시아 5개국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한 기간에 따라 문화특성의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현재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더 민감하게 체면과 눈치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5개국 여성들에게 체면과 눈치가 자국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던 간에,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

는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한국생활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체면과 눈치 기제를 활발히 발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일반화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본 연구대상자들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선별편파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반구조화된 동일한 질문에 따라 면담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베트남과 필리핀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의 교육수준과 이해정도, 통역자의 문화적 역량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여성들은 hiya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amor propio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필리핀에서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생과 결혼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적응초기 필리핀 여성만을 제외하고, amor propio가 스페인어이고 따갈로그어로 체면을 대신할 수 있는 용어가 dignidad(dignity)라고 알지 못했다. 또한 적응초기 베트남여성들의 면담은 거의 단어를 반복하는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와 같은 집단의 편포로 인하여 각 국적별 혹은 거주기간별 문화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체면과 눈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5개 여성들의 대인교류기제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를 살펴보고, 동아시아 5개국 여성들의 대인교류 기제의 문화적 차이가 그들의 한국생활적응에 어떤 문제를 보이는지 진단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인의 아내로, 한국인의 자녀를 낳은 한국인의 어머니로, 한국인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는 동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한국문화가 낯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화적 특성이라도 자국문화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들의 자국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옥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성철 (1992). Tagalog 전통가치 연구. 전북대학교 논문집, 21, 541-553.
- 김영옥 (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불안에 대한 연구: 경기도 S시의 필리핀 여성들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재은 (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재휘, 김태훈, 전진안 (2008). 체면의 비계획적 상향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9(2), 149-168.
- 김주엽 (2003). 체면에 대한 연구: 실증연구를 위한 준비. 인적자원개발연구, 5(2), 63-81.
- 김태현, 김재범 (2004). 체면욕구가 목표설정, 몰입 및 체면손상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협상학회, 32(3), 73-95.
- 남순현 (2010). 한국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문화적응 모형 탐색: 광주·전남지역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 17(4), 19-51.
- 박은진 (2007).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정숙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종삼 (1985). 한국인의 사회행동에서 나타나는 체면-기분-눈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의 가능성. 숭전대학생 지도연구.
- 송지연, 박기환 (2009).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 체면, 눈치, 문화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29-343.
- 양병창 (2001). 인상관리전략들의 반응강도에 대한 자존심, 체면, 상황적 요인의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오세철 (1979). 문화와 사회심리이론. 서울: 박영사.
- 유민봉, 심형인 (2011). 공무원의 체면민감도 척도개발연구: 척도타당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335-364.
- 유승엽 (2007). 한국인의 문화심리특성요인과 의례소비.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8(2), 205-233.
- 윤태림 (1971).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현암사.
- 윤태림 (1987). 한국인. 서울: 현암사.
- 이규만, 박경규 (2001). 부하의 체면중시가 상사-부하간 교환관계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체면, 우리성지향 행동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0(4), 1093-1114.
- 이규태 (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문리사.
- 이부영 (1981). 한국인의 새로운 윤리상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용규, 정석환 (2006). 한국적 토착심리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체면, 우리성 지향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3(1), 33-70.
- 임태섭 (1994). 체면의 구조와 체면욕구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2(3), 205-247.
- 전병준 (2001). 서양적 가치와 동양적 가치가 만날 때 부하의 성과와 체면행위가 상사의 부하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국제경영학회 해외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3-194.
- 정명섭, 김혜진 (2009). 체면민감도, 과시소비성향, 패션명품선호도가 패션명품 복제품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7(2), 189-202.
- 조용현, 이경근 (2007). 한국인의 문화심리특성이 지식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체면민감도와 우리성 지각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0(4), 1689-1715.
- 차옥승 (2008). 국제혼인 이주여성 피해실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지방시대, 11(2), 139-169.
- 차재호 (1983). 국민성의 활성화시안: 시안의 심리학적 접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집, 83-92.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채옥희, 홍달아기 (2006).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향상 교육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34-45.
- 최무현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 2009년 동계학술대회자료집, 249-270.
- 최상진 (2007).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8). 체면의 내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59-577.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상진, 최연희 (1989). 눈치의 사회심리학적 구조: 눈치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시안.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212-221.
- 최재석 (1976, 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통계청 (2011). 2010년 국제결혼여성비율.
- 한글학회 (1994).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 행정안전부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 현선희, 이화석 (2008). 여성의 생활무용참가와 체면민감도, 대인영향력민감성 및 상징소비행동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17, 1-17.
-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Bond, M. H., & Hwang, K. 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 (Eds.),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S., & Levinson, G. D.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g, C. Y. (1986). The concept of face and its confucian roots.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2, 329-348.
- Geoffrey M. (2006). *Vietnam: A quick guide to custom & etiquette*. Graphic Arts Books.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hiladelphia: Dequesne University Press.
- Giorgi, A. (2003).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한국질적연구센터 동계워크숍 자료집, 12-13.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University of Edinburgh Social Science Research Centre. Anchor Books Edition.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s: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Y: Pantheon.
- Ho, D. Y. (1976). On the concept of f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 867-884.
- Hovey, J. D., &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 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223-237.
- Hu, H. C. (1983). The Chinese concepts of "face". *American Anthropologist*, 46, 45-64.
- Kim, J., & Nam, S. (1998). The concept and

- dynamics of face: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in Asia. *Organization Science*, 9, 522-534.
 - Lebra, T. S. (1976). *Japanese patterns of behavio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34-253.
 - Nam, S., & Han, G. (2009a). Comparative cultural indigenous approach on cultural emotion of weness among 5 East Asia nations. *Psychological Studies*, 54(1), 316.
 - Nam, S., & Han, G. (2009b). Comparative cultural study on cultural mechanism(Noonchi, Chemyon, Shimcheong) of relationship among Korean, Chines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 Pacific Psychology*, 147-148.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 Inc.
 - Roches, A., & Roches, G. (2005). *Culture shock! Curious global culture guide: Philippines*. Whistler Publishing Company.
 - Snyder, V. N. (1987).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4), 475-488.
 - Thomas, M., &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3(2), 123-143.
 - Ting-Toomey, S. (1994). Face and facework: An introduction. In Ting-Toomey, S.(Ed.) *The challenge of facew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 1 차원고접수 : 2012. 6. 23.
수정원고접수 : 2012.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2. 12. 5.

Cultural Mechanisms within Relationships (Chemyon, Noonchi) and Adaptation to Korean Life by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from 5 East Asian Nations

Nam, Soonhye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estion of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rough the mechanism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hemyon & Noonchi) and what impact cultural differences within personal relationships have on adaptation to life in Korea according to length of residence. 54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from 5 East Asian countries in Gwangju city and Jeollanam-do Province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ese subjects were Japanese, Korean-Chinese from northern China, Chinese, Vietnamese, and Pilipino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length of residence(2 years), and in each group of 5-6 people focus group interview were carried out with each ethnic group during the spring of 2009. Conversations during focus group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consent, and recorded conversations were transcrib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4-step text analysis method of Giorgi(1985). Any analytical work related to this attempted to abide by the rigor of qualitative research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qualitative research as espoused by Lincoln & Guba(1985).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was found that Chemyon wa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from East Asian nations, especially more important to the Chinese subjects (面子: mian zi). Likewise, to “be quick-witted(機きてん)かきく)” was considered by the Japanese as an important virtue in social life and as an indispensable non-linguistic communication tool used by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e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from these 5 East Asian countries did not exhibit any differences in Chemyon and Noonchi according to length of residence, but did so by nationality. To reiterate, Chemyon was regarded by the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as a means of self-protection and having an adaptive function during their adjustment period to Korean society while Noonchi played the role of being another form of communication (Rhie shim cheon shim, tacit or the ability sense to read a partner's mind) for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with limited Korean linguistic abilities.

Key words : the mechanism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emyon, Noonchi, East Asian nations, qualitative research, mian zi, hiya, メンツ(menz), lian, be quick-witted(機きてん)かきく), Rhie shim cheon shim, pakikirandam